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참전
렬사보앞에서
제5차 전국로병대



정신을 심어주는
훌륭한 스승, 교양
자로 생의 순간순
간을 빛내이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전체 대회참가
자들은 변영하는
로동당시대에
부락을 누리며 여
생을 마음껏 즐길

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같은 은총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심과 열렬한 애국심을 안고 용 제 전쟁로병동지들에게 머리숙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열광 감히 싸워 승리의 7.27을 안 여 뜨거운 인사를 드리시었다.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은정을 소 촬영장에 나오시자 로병들은 의 환호를 울리었다. 아온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중히 간직하고 주세조선의 영웅 자애로운 원수님품에 달려가 안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의 불멸의 위훈이 있었기에 오 는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들인 신화를 창조하던 그 정신으로 혁 며 뿜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는 로병들에 늘 우리 공화국은 존엄높은 인 전쟁로병들이 로당의장하며 후대를 명의 꽃을 계속 피워갈 열의에 었다. 게 따듯이 손을 저어주시었다. 민의 나라로 위용떨치며 사회주 의 심장마다에 1950년대 영웅전 총만되어 있었다.

참가자들은 전쟁로병들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 사들이 지냈던 조국수호, 혁명보위 본사정치보도반

